

박유천 마약·송중기 이혼 등

'성균관 스캔들'의 저주?

이쯤되면 '성균관 스캔들의 저주'라고 해도 될 듯하다. 2010년 방영된 KBS 2TV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은 성균관 유생들의 성장기를 다룬 작품으로 시청률 15%에 육박하며 인기 물이를 했다. 그룹 'JJY' 박유천(33)을 비롯해 탤런트 송중기(34), 유아인(33), 박민영(33)은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9년, 박유천은 마약 스캔들로 은퇴했고 송중기는 송해교(38)와 이혼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성균관 스캔들'을 연출한 김원석(41) PD는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 17일 KBS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제작발표회가 열린 가운데 김원석 감독(가운데)과 출연진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박유천, 변기유천→마약유천 추락

한류스타 박유천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성폭행 스캔들에 마약 혐의, 거짓 기자회견으로 16년간 연예계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2016년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박유천은 여성 4명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 소. 오랜 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04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한 후 '성균관 스캔들' 등을 통해 쌓은 '꽃미남' 이미지는 산산조각났다. 난잡한 사생활은 큰 충격을 줬고 '변기 유천'이라는 조롱마저 나왔다. 사건 이듬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약혼 소식에 팬들마저 돌아섰다.

황씨와 약연은 끝이 아니었다. 함께 3차례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박유천은 기자회견까지 자처, "마약 투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대 마약 정밀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구속됐다. 지난 2일 수원지법(형사4단독)은 박유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을 명령했다. 박유천은 "사회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겠다"며 또 눈물을 보였다.

◇송중기, 이혼에 '아스달 연대기' 흑평

송중기는 송해교와 이혼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KBS 2TV '태양의 후예' (2016)를 통해 애인사이로 발전,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지 1년8개월여 만이다.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송중기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이 따르면 송중기는 송해교와 상의 없이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전날 송해교는 일정차 태국에 머물고 있었으며, 스태프들이 SNS 등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송해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뒤늦게 "사유는 성격 차이"라며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지라시를 통해 '송해교가 박보검과 바람을 피웠다'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퍼졌다. 이 탓에 '송해교에게 이혼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쏠리고 있다.

송중기는 2008년 영화 '쌍화집' (감독 유해)으로 데뷔 후 모범생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음주운전, 마약 폭행 등 구설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다. '성균관 스캔들'을 통해 대세스타로 떠올랐고, "뿌리깊은 나무" (2011)로 터닝포인트를 맞았다.

그러나 앞선 데 맞춘 적일까. 540여원을 들인 대작 '아스달 연대기'로 연기 인생도 위기를 맞았다. '성균관 스캔들'의 김원석 PD와 '뿌리깊은 나무' (2011)의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만드는 작품이다. 송중기는 '태양의 후예'의 인기로 힘입어 회당 2억원, 총 18부작 개런티로 36여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기 기량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다. 촬영 초반부터 송해교와 불화설이 제기됐고, 송중기가 스트레스 탓에 탈모가 심했다 등의 이야기도 흘러 나온만큼 '작품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7일 12회를 끝으로 파트2 방송을 마무리하는 '아스달 연대기' 시청률은 5~7%대로 흑평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원석 PD, 연출 인생 최대 위기

김원석 PD에게는 '아스달 연대기'가 오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성균관 스캔들'을 통해 스타 PD로 발돋움한 후 2011년 CJ ENM으로 소속을 옮겼다. 이후 '미생' (2014), '시그널' (2016), '나의 아저씨' (2018)가 연달아 히트하며 승승장

구했다. 물론 '나의 아저씨'는 방송 초기 미투 운동과 맞물려 제목, 캐릭터 설정 등과 관련해 비난을 받았지만, 섬세하고 현실적인 연출로 백상예술대상 드라마 작품상을 받았다. '아스달 연대기'에서는 '역량 부족'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대왕세종' (2008)과 '성균관 스캔들'로 사극을 경험했지만, 주로 현대극에서 소시민들의 삶을 그린 만큼 대작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늘어난 스토리와 어설픈 CG, 청동기 시대 배경과 맞지 않는 소품과 의상 등은 시청자들이 체념을 돌리게 만들었다. 더욱이 근근이준법을 위반하며 촬영, 김 PD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다. '성균관 스캔들'에 출연한 연기자들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슈 메이커인 유아인은 SNS 등에서 각종 논란을 불렀다. 강성필(43)과 전태수(1984-2018)는 2011년 각각 대마초 흡연과 음주폭행 혐의로 불의를 빚었다. 전태수는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성균관 스캔들'은 '데스노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뉴스스

방탄소년단, 5일 연속 오리콘 1위...한일갈등 영향없음



그들 '방탄소년단' (BTS)이 5일 연속 일본 오리콘 차트 정상에 차지했다. 오리콘 차트에 따르면, 3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현지 1번째 싱글 '라이츠/ 보이 워드 리브'는 7일 2만 8696포인트를 획득하며 당일 오리콘 일간싱글 차트 1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5일간 누적 59만 7866포인트를 달성, 다섯 연속 오리콘 일간싱글 차트 1위를 유지했다.

이번 싱글은 신곡 '라이츠',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방탄소년단의 기존 히트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아이돌' 일보어버전 등 총 3곡이 실렸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6, 7일 일본 오사카 안마 스타디움 나가이에서 스타디움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 : 스피크 유어셀프를 성료했다.

한·일 외교 갈등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 조치에 들어갔으나, 민간 영역의 K팝 콘서트 인기는 굳건하다.

양일간 방탄소년단의 콘서트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쥐

▶쥐띠
두 가지 업을 하려니 심신이 너무도 고달프다. 부부가 분담 하는 것도 좋을 듯. 한눈에 반했다고 결혼 상대로 착각을 한다던 실망이 크겠다.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성취할 수 없다. 때를 기다리던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

소

▶소띠
쉽게 뜨거워진 쇠는 빨리 식는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정이 들면 실증도 쉽게 느낄 수 있다. 사업이나 봉급생활도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라. 노력하는 자세를 인정받는다. 2, 9, 10월 생 서북쪽에서 도움 줄 듯.

호랑이

▶범띠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이다. 유대관계를 원활하고 겸손한 자세가 요구된다. 젊은 나이에 실망이 오는 것만 생각했지 몸은 돌보지 않았으니 건강에 적신호. 사, 오, ㅎ성씨 남, 서쪽에서 유혹을 들. 한 번 실수로 끝낼이 좋겠다.

토끼

▶토끼띠
작은 투자로 큰 소득이 오는 운이다. 실력을 한껏 발휘하라. 자만심을 버린다면 곳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미련하다. 나, 모, ㅎ성씨 양모와 이해심으로 감싸 주라.

용

▶용띠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아랫사람을 다스릴 때는 단정만 말하지 말고 장점을 칭찬해 주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라. 업무 능률이 오른다. 1, 8, 10월생 두 길배 길에서 고민할 수. 서두르지 말고 실행하라.

뱀

▶뱀띠
남들은 일고 부러워하며 부러워하겠지만 만나면 다름이 너무 잦다.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면서 양보해야 한다. 숨겨둔 사람으로 인하여 멀어질 조짐이 보인다.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힘이 좋을 듯. 돼지, 범띠와 상의해도 좋다.

말

▶말띠
사랑에 조건이 얽혀서 서로 다투겠다. 무조건적이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정을 주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방해자가 생긴다. 바, 자, ㅎ성씨 신경은 이제 그만 써라. 건강해야 사랑도 찾을 수 있겠다.

양

▶양띠
스트레스가 쌓이면 건강에 해가 된다. 마음 속에 묻어두지 말고 대화로 풀어라. 2, 7, 11월생 친한 사람과 금전거래는 금함이 좋을 듯. 작은 일로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고 지나치게 타산적이 된다. 기, 자, ㅎ성씨 추진하고자 하는 일 서두르지않으면 성사될 수.

원숭이

▶원숭이띠
동에서 밤 맞고 서에서 분풀이하는구나. 밖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고 가정하다가 화풀이를 하는 사람 받아주자나 마음고생이 심하다. 나, 바, ㅎ성씨 가정에 신경 써야 할 때. 자녀들 발전이 염려된다. 사랑만이 가정을 지킬 수 있다.

닭

▶닭띠
남자가 하는 일 안에서 관여할 수도 없고 답답하지만 하다. 내가 뛰고 싶지만 모든 여건이 맞지 않고 아이들을 생각하면 막막하다. 북쪽 사람과 상의하면 풀릴 듯. 5, 7, 10월생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면 길하니 흥기를 내라.

개

▶개띠
직장에서는 순조로우나 가정사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크다. 모든 것에 결단력이 부족하여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축대가 없이 끌고만 있으니 곤혹스럽고 난처해질 수. 기, 모, ㅎ성씨 스스로의 판단이 필요할 때이다. 더 신중해야 할 듯.

돼지

▶돼지띠
살아가면서 여러 번 고비가 있게 마련이다.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어려움을 딛고 승리할 수 있다. 4, 7, 9월생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마음뿐 자신감이 없어 괴롭구나. 과감히 추진할 때 성공할 수 있겠다. 밝은색으로 단장.